

전주한옥마을 대표 볼거리로 자리매김

‘전통연희 퍼레이드’ 내달 2일 마지막 공연... 시, 내년에도 프로그램 보완해 선보일 예정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전주만의 문화를 소개해 온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오는 12월부터 휴식기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2017 전북거리극축제 노상놀이 다음달 2일 올해 마지막 공연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규모를 자랑하는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합동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대표 김영명)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담은 전주기찻길의 풍부한 민속행위들과 실버취타대를 활용해 전주한옥마을 관통하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연출한 프로그램으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는 오직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들로 구성됐으며, 전주기찻길의 전주에서 구전돼 온 들소리(만두레 소리)를 포함해 잡색놀이(광대)와 풍물놀이(소고, 버나, 열두발), 실버취타대 연주, 깃발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흥겨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



전주시는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전주만의 문화를 소개해 온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다음달 2일 올해 마지막 공연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공했다. 총 65명의 출연진과 진행인력이 보여준 전주 고유의 민속적 모습들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매회 평균 1,500여명의 관광객들에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한옥마을을 온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하면서 전주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주시의 품격을 알리고, 연간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관광 품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전통연희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주말마다 펼쳐진 전주기찻길이 길놀이 공연 등의 전통연희 퍼레이드

는 관광객들과 함께 즐겁게 호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거리예술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강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강교육

전주시가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6일 시청 강당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두 번째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립지원과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신혜경 전문강사가 초청됐다.

신 강사는 이날 ‘행복한 인생 나의 노후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재무설계의 개념과 통장 쪼개기, 한줄 가계부 등 스스로 실천 가능한 재무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이 함께 소비를 부추기는 내 인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은 현재 1,000여명이 가입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은 전주지역 2개 지역지원센터에 250여명이 참여해 저마다 자활을 꿈꾸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군산해경, 지진해일 대비 훈련 실시

해상종합훈련을 진행 중인 해경이 지진·해일 사태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펼쳤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진과 해일 피해에 대비한 훈련을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짐에 따라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번 훈련에서는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과 같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던 선박이 해일 피해를 보고 침몰되거나 침수되는 상황에 대비해 구조 바스켓 등을 이용한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에 집중했다.

또, 선박 화재에 대비한 화재진압, 실종자 수색훈련도 병행하면서 사후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역량을 모았다.

기상특보 상황이 발생하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대피하고 해일 피해에 대비해 항만과

항·포구 출입이 통제된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해상종합훈련은 선박 구조와 화재진압 그리고 대규모 인명 구조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해경 채광철 서장은 “이날 3일차 훈련은 비좁은 수역을 통과하는 항해술과 접승 기동 훈련을 줄이는 대신 지진·해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많은 수의 선박과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민 훈련단장은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해상에서 안전과 구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비함정이 모든 상황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연간 2차례 해난사고 대비 훈련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진과 해일 피해에 대비한 특화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부안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서장 박상식)은 오는 19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홍보하고 20일부터 12월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10~12월의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최근 날이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의 종사자와 승객을 비롯해 어민 등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푸드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 22~24일

전주푸드종합경기장점 주차장서... 배추 1포기 1500원·무 1000원

김장철을 맞아 전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김장철 김장재료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내 전주푸드종합경기장점 주차장에서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김장재료를 판매하는 ‘김장철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후 5시까지이며, 배추와 무, 갓, 당근, 건고추 등 각종 김장채소와 젓갈 등 김장용 부재료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배추는 2kg기준 1포기에 1500원, 무는 2kg에 1,000원 선에 판매되며, 전주푸드를 이용해 만든 수육과 김치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운영된다.

시는 전주농협과 전주푸드가 상생협력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푸드와 전주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노환형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김장철 김장재료 직거래장터에서는 전주시농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신뢰를 쌓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기도원에서 30대 여성 뒤편 채 폭행당해 숨져

30대 여성이 전북 전주시의 한 기도원에서 팔과 다리를 뒤편 채 숨겨 경철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전 10시14분께 전주시의 한 기도원에서 A(32·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고 얼굴과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었다.

A씨의 어머니와 해당 기도원장은 “정신이상이 있는 딸이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어머니와 원장은 A씨가 숨지기 전날 밤 그녀를 때리고 팔과 다리를 묶은 채 자리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다음날 아침 A씨가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행이 의심되는 만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A씨의 어머니와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해당 기도원에 들어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